

제 6회 『애덤 스미스 입문』_에이먼 버틀러

자유인문학회 손경모 외 3명

2019년 11월 24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자유인문학회 사무실

• 정부의 역할

스미스는 5권에서 적합한 정부 역할을 탐구한다. 그는 정부와 관계에 비판적이지만, 자유방임의 옹호자가 아니다. 그는 자기가 서술한 시장 경제가 오직 그것의 규칙들이 준수될 때 - 재산이 안전하고 계약들이 존중될 때 -에만 기능할 수 있고 자기의 편익들을 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 방위도 마찬가지다. 만약 우리의 재산이 외세에 의해 도둑맞을 수 있다면 우리가 더 잘 사는 것이 아닌 것은 만약 우리 자신의 이웃들이 그것을 훔친다면 우리가 더 잘 사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 교환은 교환하려는 양측이 서로를 약탈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그 토대를 정부가 놓는다.

• 방위

스미스는 수렵인 - 채집인의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추측한다. 그러나 수렵인들은 당일을 위해 살고 재산을 거의 혹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중앙 당국에 대한 필요도 거의 없다. 그러나 농업 시대에는 사람들은 귀중한 재산을 축적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선 사항이 된다. 분업 원리 아래에서, 전문적인 군대가 수립된다.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얻을 것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강제로 모든 사람에게 '무임승차자'인 채로 남아 있기보다는 기부하게 시킨다.

-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방위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 사법

사람들이 상업, 교환 사회로 이동함에 따라,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기의 이웃들에 대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시민 정부를 수립한다.

부자들의 풍요는 가난한 사람들의 분개를 자극하는데, 이들은 종종 부자의 재산을 침해할 욕망에 의해 움직일 뿐만 아니라 시기심에 의해 자극되기도 한다. 수년의, 혹은 어쩌면 연속적인 수세대의, 노동으로 얻는 귀중한 재산의 소유자가 단 하룻밤이라도 안전하게 잘 수 있는 것은 단지 문관 치안 판사의

보호 아래에서만이다.

-중략- 바뀌 말하면, 시민 정부는 갈등의 결과이고 상업 사회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의 결과이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고, 일반적으로 유용한 결과이지만, 결코 완전하지 않다. -중략-

이렇게 불완전한 기초들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정부의 구조도 역시 불완전하다는 점은 예상 밖이 아니다. 과세할 권력은 정부에게 막대한 자원들을 쌓아 올릴 수 있게 하지만, 정부는 사인이 할 만큼 효율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관리할 유인을 훨씬 덜 가지고 있다.

왕실 소유지들이 사유 토지가 되었을 때, 그것들은 몇 년 동안에 잘 개량되고 잘 경작될 것이다. . . . 국왕이 관세와 소비세로부터 얻는 수입은 필연적으로 국민들의 수입 및 소비와 함께 증가할 것이다.

- 정부의 세수는 세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경제의 성장을 통해 충분히 지속적으로 증가 가능하다.

• 공공사업과 제도

스미스의 세 번째 정부 의무는 '설립하고 유지하는 것이 어떤 개인이나 소수의 개인들에게도 결코 이익이 될 수 없는 일정 공공사업들과 일정 공공 제도들을 설립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상업을 촉진하는 기간 시설 사업들과 사람들을 사회 및 경제 질서의 건설적인 부분이 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이다.

- 교육은 사회 전체에 통하는 하나의 언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적 기능이 필요하다.

• 공공사업

번영은 상업을 필요로 하고 상업은 도로, 다리 그리고 항구와 같은 기간 시설을 필요로 한다. 이것들 중 약간은 자기의 비용을 결코 갚을 수 없고, 그것들을 건설하는 데 조세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스미스는 믿는다. 그러나 비용의 적어도 일부는 전 국가에 대한 세금으로보다는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통행료로 벌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주요 편익이 지방적인데 비용이 통행료로 벌충될 수 없다면, 지방세가 최선이다. -중략- <<국부론>>은 이 지점까지 정부들이 국민들의 '자본들을 지휘하는 것'에 관한 광범위한 비난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 지출 제안들은 기껏해야 기이한 것 같다. 상업은, 그것이 정의의 규칙들을 필요로 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확실히 기간 시설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도로, 다리 그리고 항구가 상업적으로 건설되어서 그 비용이 전적으로 그것들의 사용자들에게 대한 요금으로 벌충되어서는 왜 안 되는지 명백하지 않다. -중략- 아마도 우리는 스미스를 너그러이 봐줄 수 있을 것인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새로운 무역 모험사업가들을 위한 자금과 필수적인 기간 시설을 부설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할 훨씬 더 광범위한 재정 수단들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들에서다.

- 이 부분은 아마도 당시의 금융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수단들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대에는 국가의 개입보다는 민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 젊은이들의 교육

스미스는 기본 교육의 증진을 기간 시설 - 상업이 번창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것 - 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중략- 반복적인 작업들에 매일 집중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사람들의 견해와 관심을 좁힌다.

자기의 전 생활을 소수의 단순한 작업들을 수행하는 데 쓰고 그것들의 효과들도 아마 항상 같거나 아주 거의 같은 사람은 일찍이 발생한 적이 없는 난점들을 제거할 방안을 찾아내는 데서 자기의 이해력을 발휘하거나 자기의 창조력을 행사할 기회를 가지고 있지 않다.

마르크스는 후에 그것을 '소외'라 부를 것인데, 스미스는 그것을 고치는 데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교육은 가장 많이 고생하는 노동 빈곤층에 집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읽고, 쓰고,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스미스는 말한다. 기하와 역학도 또한 유용하다. -중략- 그러나 국가가 학교 건물들의 대금을 치를지 모르지만. 국가는 선생들의 임금 전체를 지불해서는 안 된다. 만약 선생들이 학생들로부터의 수업료에 의존한다면, 그들의 성과는 그만큼 더 뚜렷할 것이다.

- 국가가 교육에 개입해야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빈곤층의 사회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생들에 대한 임금 전체를 의존해서는 안된다. 학생들의 선택을 막기 때문이다. 교사에 의한 봉급 보조는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1:1 보조가 바람직하며 빈곤층의 나머지 학업 부담은 필요한 경우 사회 내에서 자발적 부조형식을 취하는 것이 옳다.

• 모든 연령의 교육

스미스는 또한 정부가 성인 및 종교 교육을 증진하는 역할도 인정한다. 성직자들은 10분의 1 교구세가 자기들의 봉급을 지불할 때 게으르게 되지만, 성장하는 읍들의 유혹물들로 종교 및 도덕 교육이 지금보다 더 중요한 적이 결코 없었다. 그래서 그는 정부가 과학, 철학 그리고 예술의 연구를 장려하는 적어도 약간의 역할 - 다시, 비록 구체적이지 않지만 -을 옹호한다. -중략- 정부가 비겁의 '정신적 훼손'과 싸우는 데 '진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 이것은 전문지식을 갖춘 이든 그렇지 않든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자기 직업에서 갖는 사고 패턴에 갇혀 일정한 방식으로만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사회나 정부가 어떤 비겁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의 함의에 관해 곧잘 생각하지 않고 익숙한 패턴대로 살아가려는 경향성을 보인다.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든 말이다.

• 주권자

과세로 지불되어야 하는 마지막 항목은 '주권자의 위엄'을 유지하는 것인데, 이것은 군주제와 형사 사업의 비용들을 포함한다.

• 과세의 원칙

스미스는 네 가지 유명한 과세 원칙을 제안한다. 첫째, 국민들은 자기들이 국가 보호의 보장 아래 누리는 소득에 비례하여 기부해야 한다. 둘째, 세금은 세무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존하기보다 확실해야 한다. 셋째, 세금은 납부하기가 불편해서는 안 된다. 넷째, 세금은 최소의 부차 효과를 가져야 한다. 그것은 징수하는 데 돈이 적게 들어야 한다. 그것은 산업과 기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중략- 과세는 정부들이 바르게 해야 하는 어떤 것이라고 스미스는 말한다. 예를 들면, 회사들에 대한 세금은 현명하지 못한데, 왜냐하면 - 그가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관찰하듯이 - 우리의 소득이 달려 있는 자본은 대단히 이동성이 있기 때문이다.

스톡의 소유자는 당연히 세계의 시민이지, 반드시 어떤 특정 국가에 소속되지 않는다. 그는 자기가 부담스러운 세금에 사정되기 위해 성가신 심문에 노출되는 국가를 버리고 떠나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 자기가 자기의 사업을 경영할 수 있거나 자기의 재산을 더욱 마음 편히 즐길 수 있을 어떤 다른 국가로 자기의 스톡을 옮길 것이다.

- 우리는 흔히 소유와 존재를 분리하여 생각하듯, 국가가 소유보다 더 우선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소유는 존재와 일치한다. 자본은 언제나 머물 국가를 찾아 이동할 뿐이며, 국가는 그때에만 의미를 갖는다. 소유를 무시하는 존재란 있을 수 없으며, 자본보다 국가를 우선시하는 국가는 지속될 수 없다.